

## 러시아 저널리즘의 전환점 : 당의 충실한 助力者에서 어디로?

Michail Shinkovskiy\*

### 차 례

1. 사회적 배경
2. 'GLASNOST': 역설적인 결과들
3. 매스미디어 ; 현재의 문제점과 어려움, 하지만 미래는…?

### 1. 사회적 배경

현재 더욱 심화되어 가는 위기가 기본적으로 구 소련(USSR)의 지배권력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 물론 과거 공산정권의 지배와 그 붕괴는 현재 위기의 주요 원인이다. 국가, 보다 정확히 말해서, 국가의 잔재들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과 일반적인 위기 극복방식들간의 차별성이 —이는 구 야당 세력이 권력에 접근하게 된 이후에 선언된 것이다— 더욱 더 분명해지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많은 측면에서 구 소련의 정치권력으로부터 파생된 것만은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결사적으로 풀려고 애쓰는 문제들은 피터대제 이래 계속 존재하여 온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전통적인 상황에서 현대적인 것으로, 비시장경제에서 시장적 상황으로 전통적인 정치구조에서 오늘날 발달된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모든 경우들에 있어서, 성공적인 현대화 작업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 효과가 있었다(이는 소련의 산업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이들은 간혹 자발적으로 그러나 대개는 억압적인 상황 하에서,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수행하고 자원들을 동원하고 개혁의 결과로 어떤 것들을 잃게되는 모든 사회적 계층들의 행동을 힘으로 억압할 수 있는 체제들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정권은 현대적인 경제체제를 창출하고, 사회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간혹 의식적으로 하지만 보다 대개는 무의식적으로 현대적인 정치구조로 가는 길을 열었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민주화를 수반하게 되었다.

\* 현재 러시아 동화국 블라디보스톡의 Far Eastern State University의 신문방송대학 학장으로서, 국제정치와 미국의 정보정책역사에 대한 강의를 맡고 있다. 그는 1974년에 Far Eastern State University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79년 레닌그라드 대학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된 관심 분야는 현대 환태평양지역의 문제와 정보정책, 그리고 여론과정이며, 2권의 저서와 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신흥공업국들의 역사적 경험들 —특히, 한국의 경우—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기 위해선 그에 걸맞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선행조건들이 그 국가 내부에 이미 형성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준다. 즉 새로운 사회적 충격과 함께 그에 대한 주요한 보상으로서 문명화된 경제와 국민들의 복지 수준 향상이 예상되지만,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아시아의 ‘호랑이들’이 보여준 예들에 따르면, 민주화와 서구화의 수준은 반드시 그에 걸맞는 사회적 조건들과 상응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노력들은 가속화되는 불균등한 발전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 내부의 전통적 세력들로부터 파생되는 호전적인 반동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중국의 경험 또한 그러한 조화의 필요성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저발전 국가 내부의 야당 세력들에서 발견되는 전통적인 악습들 —분파주의, 내부의 암투, 추상적이고 실현불가능한 계획들, 한탕주의—이 러시아 내부에도 존재하고 있다.

과연 러시아 사회가 서구의 폭넓은 민주주의적 정치 구조를 꾸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나 현재 러시아에는 민주주의에 필요한 사회 경제적 조건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현재 러시아에서 현대화의 동인으로 기능하고 있는 유일한 사회적 계층은 지식인이다.

러시아에서 지식인들이 권력을 쥐게 된 것은 지난 해 발생한 팔월 사건 이후이다. 그들은 서구식 자유주의를 지지한다. 자본주의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신념과 우익에 대해 가졌던 윤리적 우월감, 그리고 그밖의 사회주의적 사상들은 과거 속으로 사라져갔다. 이제 그것들은 자유주의적 가치들 —자유, 집단적인 권리에 앞서는 개인적인 권리의 우선성, 권력의 공유, 시장과 자유경쟁으로 대변되는 경제, 국제적 협력—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고들은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방식으로 소화되어지고 있다.『게다가 전통적인 무정부주의적 특징들, 권력 그 자체에 대한 배척, 정의 보다는 편의주의에 따르는 현실인식들, 심지어 그 악명높은 “민중에 대한 신뢰” 등이 확고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심지어 사회에서 가장 높은 교육수준을 지닌 부분을 포함해서 개혁에 대한 지식인들의 준비가 전혀 부족했음으로 인해, —이는 전체주의적인 ‘악의 제국’에서 파생된 것이다.—오늘날 우리는 한편으로 노골적인 자화자찬과 가능한 한 많은 권력과 재산을 모으고자 애쓰는 모스크바, 성 페테르스부르크, 그리고 러시아의 관료제적 민주주의자들에 대한 동경, 그리고 전례없는 타락의 현상들을 보게 되었다. 다른 한편 자신의 무능력을 이전의 구조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끊임없는 시도들과 함께 불법으로 금지된 공산주의자들 중에서 적을 찾고, 우리의 상점들에서 물건의 품귀를 야기시킨 공산주의자들의 감춰진 돈, 다이아몬드, 백금을 찾아나서는 등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정치상황은 시민정치가들이 무분별하게 권력에 접근했다가 얼마 안돼 독재가 출현했던 한 아프리카 국가의 특정시기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상황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필리핀의 코라손 아키노 정권의 정책에 대한 이광요 수상의 언급을 살

펴보자.

“나는 코라손이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백만년 동안 기억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그녀는 실천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닌, 많은 민권 옹호론자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얼마나 많은 돈이 마르코스에 의해 유용되었는지에 관심이 있었으며, 마르코스 부인이 지녔던 수천벌의 옷과 구두 등을 폭로하는 데에만 급급하였다. 이는 민중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에는 필요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경제나, 토지 등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루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권위주의 세력들은 개혁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확신한다. 과거나 지금이나 권위주의적 체제들은 항상 발전을 방해할 뿐이다. 그러나 거의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현재의 러시아 상황에서, 민주적인 통치를 구현한다고 하면서 지금껏 무능함만을 보여준 지식인—책벌레들의 정책이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는 거의 생각되지 않는다.

단약 현 러시아 정부와 엘친 대통령이 자유의 폭을 확장시키고, 러시아의 법률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실행하는데 충분한 힘을 모으지 못하고, 동시에 가속적인 시장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다른 권력이 그를 대체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개혁이란 없을 것이다.

러시아의 외교정책 노선은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첫번째 실수는,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러시아 주권의 재확립 과정에서 불충분한 속고와 균형감 상실로 인해, 그들은 바라던 바대로, 증오스런 ‘볼셰비키 제국’과 함께 이 제국의 명령체계의 중심을 붕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바라지도 않았던 그밖의 많은 중요한 것들까지도 잃게 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리투아니아나 정치가들의 쟁투로 인해, 연방국 간의 형제적 관계가 실질적으로 붕괴되었다는 점이다. 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러시아 민중들에게는 더욱 더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동시에 이는 러시아 연방 안의 많은 나라들 간의 관계를 그 기층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오늘날 사이비 사회주의 제국의 붕괴라는 최초의 과정을 통해 얻은 이익과 형제국 간의 100년에 걸친 협력의 파괴라는 두번째 과정을 통해 얻은 불행 사이의 차이는 매우 분명하며, 이는 러시아가 소련에 가했던 치명적인 일격이 부메랑처럼 다시 러시아에게로 돌아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군대나 흑해 함대의 문제들은 상황을 보다 혼란스럽게 할 소지가 있다.

## 2. ‘GLASNOST’ : 역설적인 결과들

지난해 중반 이래로 1987년의 글라스노스트를 통해 놀랄만한 뭔가가 러시아 저널리즘에 불꽃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뭔가가 이미 일어났다. 우리가 과거에 처음부터 끝까지 흥미있게 읽던 “아가늘(불꽃)”, “리찌라뚜르나야 가제타(문학

신문)”, “마스콥스끼예 노보스찌(모스크바 뉴스)” 등은 이제 대중 훑어 볼 정도의 가치밖에 없게 되었다. 새로운 사실들이 부가되고 과거의 불명예스런 일들은 비판되었지만, 발전도 없고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과정들에 대한 이해의 심화도 없는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의 언론인들이 무언가 써야 할 대상을 잃어 버렸다는 인상을 받는다.

러시아의 두툼한 전문잡지들에서 나타나는 사회 정치적 저널리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외형상, 정보와 평가 그리고 훈계 등을 담은 복합체로서, 암묵적으로 독자를 존중하지 않고 불신하며, 자기 혼자선 사건을 이해할 수 없는 어린애들처럼 업신여긴다. 이러한 글들은 “페레스트로이카”의 낡은 기관지들에서 잘 나타나는데, 거기엔 주로 후르시초프시대의 해빙기에 정신적인 자극을 받아 등장했다가 그 후 침체기를 겪었던 이들의 기고문들을 주로 실었다. 최근에 발행된 간행물에서는 새로운 저널리스트들이 등장해 전형적인 반골적 사고의 틀에서 탈피하여 보다 발전된 면모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The Merchant”, “Megapolis-Express”, “Independent Newspaper” 등과 같은 신문들은 사실과 그들이 내린 평가 사이의 차별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신문들은 계몽적인 성격이 아닌, 상업적이고 정보제공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반면에 과거의 저널리즘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고 있었다. 즉, 그것은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 서구세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확산시키고, 러시아 역사와 관련해선 역사에 대한 깊은 분석의 시도 보다는 단지 어쩔 수 없이 강요된 숙명이었다는 식의 자의적인 해석을 행하는가 하면, 가슴을 치는 죄책감을 강요하면서 과거와 현재에 대한 정당화를 꾀하고, 반러시아주의자들을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소위 “애국적” 조항들을 기반으로 무제한적인 무익한 비판과 자아비판들을 제공하고 과거를 통해 미래를 발견하자는 식의 퇴행적인 감상적 정서들을 북돋았다(물론 이것들은 전형적인 사례를 든 것일 뿐이며, 항상 예외란 있게 마련이다).

러시아 저널리즘의 문체 상의 특징들 중 하나는 쓸데없이 많은 아이러니, 풍자와 인용의 지나친 남용, 문학작품의 차용 등이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유추 등을 통해 작가의 박식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으로서 진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러니는 무방비의 무기이다. 기본적으로 아이러니는 언론인들의 무능력과 자신감의 결여를 감추는 장치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인용을 이러저러한 사건들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과 그런 사건들을 기존의 문학작품이나 과거 역사에서 이미 다루어졌던 것으로 인식시키는 일은 오히려 매우 위협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식의 사고방식은 결국 저자와, 나아가 독자들이 그 문제를 전혀 새롭고 전통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앗아가 버린다. 이렇게 될 경우, 모든 사건은 이미 러시아 역사 속에 존재하였던 전통적 상황들의 재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당장 벌어지고 있는 현재 사건들과 사고들에 대한 독창적인 이해를 구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러시아 사회가, 그간의 개방 노력에도 불구하고(의심할 바 없이, 오늘날 사회는 많이 개방된 상태에 와 있다), 서구로부터 새로운 사고의 유입도 없고, 독창적인 결정내용도 없으며, 결실있는 협력관계도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더 나아가 서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쉽게 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서구 사회의 세련된 문화와 정치과정을 대변하는 그 어떤 것들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판단들은 특히 “브라브레미 필로소피(철학의 제문제)”라는 잡지나 “리찌라뚜르나 야 가제따(문학 신문)” —이제 별볼 일 없게 되어버린 독일 과학자들의 논의들을 제탕하고 있는 신문이다. —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글을 내는 독일 학자들은 러시아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거나 또는 러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거나 러시아의 종교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관심은 대부분 지금까지도 위세를 떨치고 있으며 많은 친슬라브계 사람들의 사상적 모태이기도 한 범게르만주의를 향한 낭만적인 열정과 관련되어 있다. 그들의 관점은 대체로 상당히 보수적이다. 그들은 서구 사회의 과거를 대변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퇴행적인 역사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서구 사회에 대한 이해의 문제가 러시아 지식인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지적인 잠재력에 대한 시급적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 현재 러시아의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은 전적으로 서구를 지향하고 있으며 문명화와 그것의 가치 그리고 시장과 사적 기업에 대한 논의들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비록 300년이 뒤쳐지기는 했어도, 서구를 이해하는 일이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식의 서구에 대한 이해는 막대한 지식의 축적만을 야기시킬 것이다.

언론인들은 저널리즘의 위기를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분명히 예언자적인 언론의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지금은 전문인으로서의 의식을 되찾고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들에 착수하여야 할 때이다. 언성을 높여가며 말하던 “글라스노스트”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있다. 언론 자유의 시대, 평범한 전문인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평범한 정상적 생활은 마피아처럼 “치고 빠지는 기동전”이나 코르마초프처럼 식은 땀을 흘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이해하는 일과 지고한 전문가적인 의식을 요구한다. 이것은 지역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 간의 복잡한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있어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문제이다.

비록 신문에 글을 쓰는 사람이 교육받은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기고자들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이러한 요구는 그 글이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며, 글에서 기술된 해석의 상대성에 대해 그리고 다른 접근 방식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어떤 글이 아무리 비증있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할 지라도, 핵심적으로 그것은 현대의 문명, 나아가 오늘날의 세계만큼이나 개방적인 대화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의 글들 —신문의 기사들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글에서도—은 항상 옳았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논리를 의심하지 않았으며, 다른 관점들은 모두 묵살해 버렸다. 이런 식의 글들은 마치 근접할 수 없는 요새와 같은 것이었으며, 독백과도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다원주의적 상황 아래서는 이러한 글들이 대화할 준비가 진혀 되어있지 않은 사람의 글로 비쳐질 수 밖에 없게 된다.

빈번하면서 위협스럽기까지 한 러시아 저널리즘의 또다른 문제점은 언론인의 윤리 그리고 평범한 인간의 재능에 대한 무지이다. 경쟁자에 대한 모욕과 조롱에 대한 이야기는 접어두자. 그것은 러시아식 “글라스노스트”에서 항상 내재해 있는 특성이며 공손함에 대한 어떠한 강제도 없는 문화의 상징적 지표이다.

이제 먼저 편집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사실, 주요 신문이나 잡지의 편집진들은 지적 엘리트로서의 몸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각각의 기사들에 대한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편집자 뿐이며, 편집자는 기사의 신선함을 판단하여, 그것이 만약 신선한 내용이라면 이를 통해 새로운 현상에 대한 사회 성원들의 이해를 촉진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고쳐서 이해가능하고 보다 도움이 되게끔 바꾸어야 한다.

저널리스트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맨먼저 편집인들이 어떤 신문이나 잡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잡지의 모든 기고들이 정해진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다면, 그 잡지는 불가피하게 정체를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신선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기고를 받아야 할 것이며, 여러가지 다른 관점들을 함께 실어야 하며, 또 새로운 표현방법들을 발견해야만 한다. 바로 기존 언론들에서 지배적인 구조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저널리즘의 위기를 자초하는 길이며, 그런 면에서 기존의 신문들을 새로운 신문들로 바꾸는 것보다는 새로운 신문을 창간하는 쪽이 훨씬 더 용이할지도 모른다.

글라스노스트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저널리즘의 위기는, 예를 들어 자꾸 길어지고 쓸데없어지는 경제논쟁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긍정적이며 안심이 되는 정표이다. 현재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로부터 벗어나는 두가지 길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감정적인 독재를 수반하는 검열적 억압을 통해서이다. 이는 결국 “글라스노스트”를 야기시킨 낡은 비판적 사고를 보존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두번째는 각기 다른 사회 집단들의 이해와 욕구에 따라 출판물들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필연적으로 판매부진과 그에 따른 생존경쟁을 야기시킬 것이다.

### 3. 매스 미디어 : 현재의 문제점과 어려움, 하지만 미래는...?

1992년 가을부터 시작된 사회 정치적 개혁은 필연적으로 대중 매체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이제 와서야 확실히 지적될 수 있다.

우선 경제적 토대를 살펴보자. 전반적인 경제구조가 자유시장의 원칙에 따르게 됨에 따라 러시아의 모든 지역 신문들은 폐간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었다. 개혁 이전에도 이런 종류의 신문들 중 15%만이 —수적으로는 상당히 많다— 정부의 재정적 도움없이 존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약 5000종에 달하는 지역 신문들을 지원할 자금이 없으며, 경제 자율화 조치 이후 종이, 전기, 운전기설비에 드는 비용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정부는 이전의 재정적 지원을 계속할만한 예산이 없으며, 이미 재정적 지원은 끝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의 많은 전위적 저널리스트들의 실업율이 급격히 증대되는 결과를 수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요인들은 지방신문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 신문이나 전파매체들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저널리즘의 더 높은 부분들 마저도 지역신문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들을 지니고 있다. 이는 아주 먼 미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몇몇 신문과 “러시아 TV”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치열한 언론 경쟁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는 “사회적 중요성을 지닌 언론에 대한 지원 기금”을 특별히 만들었다. 단지 몇개의 신문들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신문”, “러시아” 그리고 몇몇 다른 발행물들이다. 한편, 이것은 현재 아주 색다른 질적인 차원에서 “대중 매체 독립”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두번째, 이데올로기적 조건을 살펴보자. 개혁 이전에는 언론의 독립과 자유에 관한 문제가 다른 관점들이 절대적으로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공산당 독재에 맡겨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재정적인 지원문제를 둘러싸고 시련에 빠져 있다. 당 위원회에 대한 종속은 우리의 언론인들에게 명백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제거해 버렸다. 지금의 언론인들은 똑같이, 아니 더 즐거운 마음으로 러시아 정부로부터, 지방 정부로부터, 그리고 대기업과 협력 단체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 하에서, 예를 들어 “러시아 신문”이 현 정부와 관련된 어떤 비판적인 기사나 단순한 논평조차 신지 않는 것은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러시아에서 “언론의 자유”의 문제는 새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전에 있어서, 특히 올바른 방향으로의 발전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이다. 단계적으로 러시아의 대중 매체는, 점점 더 자유롭고 민주적

인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는 사회에 걸맞게,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적 기관으로서 발전해 갈 것이다.

세번째로, 양적인 성장을 살펴보자. 지난 2~3년간, 특히 언론법 통과 이후 러시아의 언론들을 새로운 신문, 잡지, 민영 TV-라디오 합작회사 등의 출현으로 빠른 수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이렇게 새로운 신문과 TV 회사를 설립한 언론인들은 정부가 보조하는 언론기관에서 종사한 경험은 없지만, 그들은 치열한 시장경쟁 속에서의 성공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다. 증가하는 광고에 대한 수요와 새로운 정보 서비스 등을 활용해서, 자신의 발행물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모든 시장경제의 규칙을 준수하며 생존을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 나는 러시아 전역에서 잘 알려진 예를 들기 위해 Far Eastern(극동) 지방의 대중매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Vladivostok*”, “*Eastern Express*”, “*The North-East of the Russia*” 등의 신문과 독립 라디오 회사인 “*Vostok*”, 합작투자 TV 회사인 “*Vostok*” 등이다. 이러한 회사들의 저널리스트들과 경영진들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려 애쓰고 있다. 그들은 발행물들의 효율성에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그들은 똑같은 문제들을 가지고도 각기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정치적 세력들이 그들의 지면과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유재량에 맡김으로써 독자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상세한 이해를 구할 수 있게끔 해준다. 나는 분명히 이러한 신문과 TV-라디오 회사들이야말로 러시아 저널리즘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공동작업과 협력의 문제이다. 극동 지방의 언론은 이 지역을 거대한 군사집결지에서 태평양 연안 각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경쟁적인 참여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

‘*Vladivostok*’ 신문은 언론인 교환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두 신문사와 협정을 맺었다. 이 신문은 역시 하얼빈의 신문과도 접촉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촉은 완벽한 의미의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예가 완전한 상호 교류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가지 문제에 대해 대답을 해야 한다. 먼저 우리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접근에서 볼 때 우리는 연구자들과 학생들의 교환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으며, 이러한 교환이 서로의 매체체제에 대한 비교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 장기적인 과제이며, 우리는 우리의 언론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우선 다음과 같은 요지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들 간의, 그리고 정부들 간의 서로에 대한 지식이 부재한 상태를 청산하기 위하여 우리 국민과 정부들을 도와야 하며, 이를 통해 상호 정보교환 체제를 갖추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과제이다.